



[뉴스] 하림 프리미엄 라면 진출 전육수로 차별화 02



Economy

코스피	2988.64 (+44.23)	코스닥	983.43 (+29.96)
금리 (미국 3년)	1.813 (-0.011)	환율 (원/달러)	1186.80 (-7.00) (14일)



우유가격 줄줄이 인상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우유를 고르고 있다. 서울우유가 지난 1일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5.4% 인상한데 이어 남양유업이 이날부터 우유 제품 가격을 평균 4.9% 인상한다. hy도 다음 달부터 우유와 발효유 일부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뉴스시스

반도체 악재, 메모리로 불똥 제품 생산 차질에 수요 감소

애플, 아이폰 생산목표 축소 등 반도체 부족에 IT 제품생산 줄어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정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비메모리 반도체 부족 등으로 수요가 주춤하면서 가격 하락이 본격화한 것. 다만 일시적인 현상인 만큼 조만간 다시 호황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도 크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는 최근 보고서를 내고 4분기부터 D램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4분기에는 전분기보다 3~8%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락이 본격화하는 내년부터는 가격 하락이 평균 15~20%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가격 하락 이유는 공급 과잉이다. 비트 단위로 수요가 16.3% 증가하면서 공급 증가율인 17.9%를 넘어선다는 예상이다. 특히 삼성전자가 평택 2라인 가동을 본격화하는 등으로 공급량을 19.6%나 늘리면서 수요를 한참 뛰어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D램 수요가 공급 증가 수준에 미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을 들고 있다.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으면서 메모리 수요 역시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

당장 메모리 시장 '큰 손'인 애플이 아이폰 13 생산 목표를 대폭 줄였다. 외신 등에 따르면 연내 생산 목표를 최대 1000만대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 내년에도 생산량을 회복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재용기자 juk@

앞서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업체들도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스마트폰 등 IT 기기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려졌다. 갤럭시 Z 플립 3가 대표적, 갤럭시 S21 FE도 반도체 부족으로 출시가 취소됐다는 추측이 나온다.

반도체 부족 현상도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모습이다.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가 여전히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중국도 전력난 등으로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말레이시아 등 반도체 후공정 시설이 밀집한 동남아시아 등 지역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까지 일어나면서 반도체 공급은 더욱 지연됐다.

다행히 긍정적인 신호도 나온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 북미권역 호세 무뇨스 사장은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최악을 지났다고 말했다. 3분기에 심각한 상황을 겪었지만, 이제 다시 공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 전세계적으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고, 현대차 등 완성차를 비롯해 반도체 생산 시설에 새로 투자하는 움직임도 빨라졌다.

때문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다시 메모리 슈퍼 사이클이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도 적지 않다. 비메모리 공급이 일부 정상화됨과 동시에, DDR5가 새로 출시되면서 수요를 촉진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인텔 차세대 서버용 CPU도 출시되면서 수요를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김재용기자 juk@

m-커버스토리

물가 급상승... 美 긴축 빨라진다 테이퍼링 임박, 증시 변동성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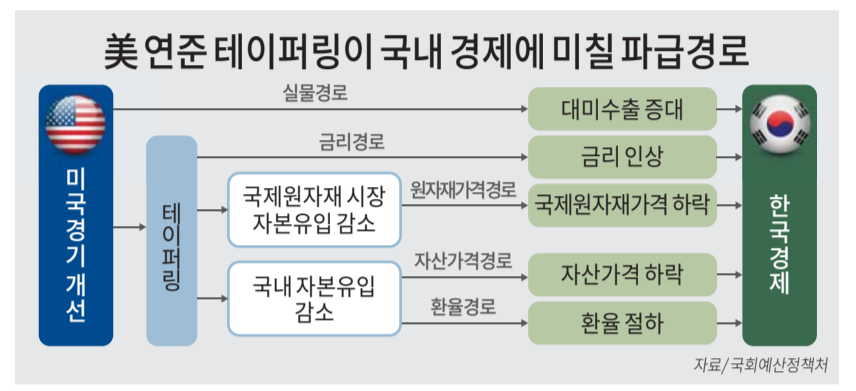
글로벌 경제 정상화 움직임

美 9월 CPI 전년동기비 5.4% ↑ 연준 이르면 내달 테이퍼링 시작 국내 자산가격·금리 경로 영향 주식·채권가격 하락 가능성도

“역사에 정상적인 기간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상이라는 표현은 경제학 교과서의 허구일 뿐이다.”

경제학자 조운 로빈슨(Joan Robinson)의 말이다. 노동시장 여건, 경제성장,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및 기대인플레이션 간의 상호작용이 근본적으로 달라 이전을 기준으로 한 평균 정상적인 경제상태로의 회귀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미국 중앙은행의 연방준비제도(Fed)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정상화를 위해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을 시작할 수 있음을 암시했다. 다만 이번 정상화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다르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시장이 견조하고, 한 번의 경험을 통한 학습효과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정상화, 내수 및 서비스업 회복,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등 펀더멘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연준, 11월 중순 테이퍼링 시사

14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공개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달 연준위원들은 경제회복 상황에 따라 11월 중순이나 12월 중순 테이퍼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을 보면 9월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5.4% 올랐다. CPI 상승률은 5개월 연속 5% 상승률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4.8%로 전월(5.2%)과 비교해 0.4%포인트(p) 떨어졌다. 물가와 실업률이 정상수준을 회복하고 있는 만큼 경제회복을 위한 테이퍼링을 실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테이퍼링은 정부가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확대했던 유동성 규모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전략을 말한다. 즉,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비해 중앙은행이 정부나 기업, 금융회사로부터 매입한 국채나 회사채, 주택저당증권(MBS) 규모를 서서히 줄여 나가겠다는 것이다.

연준위원들은 구체적으로 매달 미국채는 100억달러씩, MBS는 50억달러씩 각각 매입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제시했다. 월 1200억달러의 자산매입규모를 매달 150억달러씩 8개월에 걸쳐 축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매입종료 목표시기는 2022년 중반이 된다.

◆미 테이퍼링과 국내 영향

문제는 미국의 테이퍼링이 우리나라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지난 2013~2014년 미국이 테이퍼링을 시작한 시기를 보면 국내는 주로 자산가격 경로와 금리경로에 영향을 미쳤다. <4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고승범 “전세대출, 총량 6%대 넘어도 용인”

주택 실수요자 보호 차원 연말까지 총량 유연 대응

“연말까지 전세대출, 집단대출의 경우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겠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사진)이 전세대출 실수요자를 보호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위원장은 14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투자자 교육플랫폼 ‘알투플러스’ 오픈 기념회 축사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10월과 11월, 12월 중 전세 대출에 대해서는 총량 관리를 하는 데 있어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할 생각이다”라



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전세 대출과 관련해 “가계 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가 6%대를 초과하더라도 (전세대출은) 용인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집단대출은 일부사업장에서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고 위원장은 “연말까지 대출공급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사업자의 경우 애로가 있을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등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9월 중 가계대출 동향’ 자료를 통해 고 위원장이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층 실수요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세심하게 강구할 것을 강조했다는 내용을 명기한 바 있다.

한편 가계부채 보완대책은 늦어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고 위원장은 “이달중 가계부채 추가 대책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에는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방안과 전세 대출 2금융권 대출을 관리하는 방안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뉴스이벤트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국힘 대권주자들, 윤석열 ‘당 해체’에 맹비난 ▲법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정적 2개월 유지” /사진 뉴스시스

▲민주당, 통합형 선대위 구성... 이낙연 지지층 흡수 관건 ▲이낙연 지지자들, 이재명 당선 무효가처분신청



▲홍준표, 경기도 방문 “이재명 이길 사람 나쁜” /사진 뉴스시스 ▲박범계 “월성원전 고발사주 의혹 조사 중”